

김·문 이르면 오늘 회동...국회정상화 물꼬트나

〈김무성〉 〈문희상〉

野 비대위 구성 완료... 세월호법 등 정국해법 도출 기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22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1일 비대위 구성을 마치는 등 새정치연합의 내용이 수습되고 있어 이번 주 내에 정국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리기사 폭행 시비에 휘말린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도 이번 주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세월호 정국 해결의 물꼬를 트지 않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21일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내일(22일)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하고 문희상 위원장은 세월호 문제 해결

을 위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대표-문 비대위원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2+2 회동’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그건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 딱 막힌 상황에서 (모든 걸) 집중해 풀어나가 한다는 문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신임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22일 김무성 대표와 첫 회동을 갖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19일에도 국회의원·광역단체장·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회동 가능성에 대해 “당연하다. 오늘이라도 나는 만난다. (김 대표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이 협상의 물꼬를 터주고 최종 합의는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의 몫으로 넘겨줄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김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의사 일정을 재조정한다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5일까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계류된 9개 법안을 단독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극한 대치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유족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계속해서 논의해 간다는 두-트랙 합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소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멸의 길이라는 인식이 여야에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상황”이며 “여야 모두 마음을 비우고 협상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직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문희상비대위’ 6인체제로

박영선·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참여...김한길·안철수 고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가 21일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의원 등 당내 각 계파 수장이 참여하는 ‘6인 체제’로 구성을 마무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효율적인 전달체와 준비와 당 혁신을 추진을 위해 외부 인사가 배제된 비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밝혔다.

비대위는 문 위원장을 비롯, 당연직인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의원으로 구성됐다.

조 사무총장은 “전대 준비와 당 혁신을 힘 있고 책임 있게 추진할 지도급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라면서 “공정성의 원칙을 토대로 최대한 빠른 데 당을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선에서 지난 대선 후보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전노(전노무현) 진영의 좌장이라는 점이, 정세균 의원은 문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요 파벌의 수장이자 잠재적 대선주자라는 점이 감안됐다. 또 박지원 의원은 호남과 구 민주계를,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 의원은 주요 계파인 민평련을 각각 대표한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 인선 발표 직전까지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두 사람은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입장에서 지금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참의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22일 첫 회의를 하기로 했으며, 당 혁신과 전대 준비를 두 축으로 해

당 재건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와 전대준비위도 조만간 별도로 발족할 예정이다.

한편, 문희상 위원장은 지난 19일 수락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국회의원은 국회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라’고 해서 나는 한 번도 국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다했다”며 국회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위원장은 또 언론과 인터넷에서 “내게 복안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슬아슬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지켜봐달라”면서 “세월호특별법 해법은 유족의 동의 아닌 양해를 얻는 선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민주당’ 당명 못쓴다

민주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21일 서울 성동구 한국청년회의소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었다. 이로써 옛 민주당이 지난 3월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출발한 지 6개월 만에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활했다.

민주당 대표에는 강신성 창조위원장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김민석 서울시장위원장과 김도균 창조위 기획홍보위원장도 각각 사무총장과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실천과 개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7공화정 정치개혁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의 창당으로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는 주장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에 정식 등록되면 다른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가라운드

박혜자 “콘텐츠 사업 국고 지원금 회수를 저조”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21일 국고를 지원한 콘텐츠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성공을 거둬도 정부가 국고 지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근 3년간(2011~2013년) 콘텐츠별 국고지원 내역 및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5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매출은 128억원이나 올렸지만 국고지원금은 4900만원만 회수됐다.

이같이 흥행 작품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달리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서 지원사업에 대해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해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수입쌀 관세율 국회 동의 의무화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쌀 개방 연장을 위한 협상은 포기한 채, 결국 쌀 수입개방을 강행했다”면서 “일방적인 쌀 수입개방과 쌀 관세율에 대해

국회동의를 의무화해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주는 개방정책에 경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쌀 개방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전농시위 관련 징계안 제출...오병윤 “형사고소”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오전 쌀관세화 등을 논의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회의장에서 전농 회원들이 의원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투척한 것과 관련, 오 의원이 전농회원들이 국회의원회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해 불법 난입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현숙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징계안에서 “외부세력 혹은 단

체를 국회에 끌어들여 타 정당의 당정간 담판장에 고춧가루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행위를 기획·방조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21일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이며 사실무근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징계 불발 난입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현숙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징계안에서 “외부세력 혹은 단

野 “국회해산 발의, 정종섭 장관직 사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파행 정치화와 관련해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정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대통령의 눈에 들려는 발언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쯤 되면 정말 막 가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대통령의 눈에 들려는 발언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쯤 되면 정말 막 가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마저 ‘통범부’로 여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 부작용: 수술 초기 이안 빛반경,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세션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에드를 레이저: 스무스빔,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체오 레이저: 쉐닝맥스, 다리오우즈
- ④ 피부 미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 ⑤ 주름·출혈: 프락셀레이저, 울트라펄스레이저, 프락셀레이저, 인트라라임, 프락셀 세너
-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종
- ⑦ 비인: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

진료시간
상무점 · 평: AM 9:30 ~ PM 7:00
· 토요일: AM 9:30 ~ PM 5:00
· 윤임점 (미세의료) / 평: AM 9:30 ~ PM 8:30
· 일: PM 1:00 ~ PM 5:00
윤임점 · 평: AM 9:00 ~ PM 8:30
· 토요일: AM 9:00 ~ PM 4:30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